

가을 저녁 산장에서

왕유/이원섭 역¹

비 개고 난 다음
산중에는

가을빛
나날이 짙어가

소나무 사이로
달빛 비치고

맑은 샘물
돌 위를 흐른다.

대숲이 버석이더니
빨래꾼 돌아오고

고깃배 지날 적
흔들리는 연잎

꽃은
질테면 저라.

임은
나와 함께 계시리니

王孫自可留
隨意春芳歇
蓮動下漁舟
竹喧歸浣女
清泉石上流
明月松間照
天氣晚來秋
空山新雨後
山居秋暝
王維

¹이원섭의 역시 제목은 그냥 '가을' 이다.

